

사설

현재 내 행복의 점은 어디에

요즘 매우 힘들다고들 말한다.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은 곧 현재를 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현재를 살해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존재감을 죽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할 리가 있겠는가. 현재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점들이 연결되어갈 때 진정한 뜻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 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의 점들이 연결된다. 때문에 자꾸만 나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현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시간이 있다.

그 세 개의 시간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관조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이다."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성인에게 있어 시간이란 현재이며 그것은 객관적 시계가 아니라 주관적 체험이다."라고 했다. 이 같은 말을 한 그는 누구인가. 중세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고 고대문화 최후의 위인이었다. 그야말로 중세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케 한 선구자였다. 그런 그가 금쪽같은 이 말을 남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현재는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혹자는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흥축한 모습을 하고 보면 흥축해 보이고 꽃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여다보면 꽃이 되는 것이다. 즉, 어떻게 사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문 수준이 높아도 본인이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없으면 불행한 것이다. 걱정할 것이 별로 없는데도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서 하면 그 또한 불행이다. 지나간 과거를 현재로 끌어올려 현재에 살도록 하면 시간은 현재지만 과거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현재로 앞당기게 되면 현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불행이다. 예수께서도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고 했다. 미처 미래의 걱정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다. 현재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도 시간이란 시계가 아니라 자신이 몰입하는 '지금 이순간'이라고 했다.

동서고금의 성인이나 현인 그리고 물리학자까지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는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하다. 때문에 현재에 살라. 현재 내 곁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동료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면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바로 현재를 진정으로 관조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체는 제 중심 무계에 따라서 제 중심으로 기운다. 나의 중심은 나의 사랑이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는 그리로 내가 끌려간다."고 또한 고백록에서 말했다. 자, 우리들 모두는 이제부터 현재를 사랑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잡자. 그래서 행복의 점들을 영원히 이어가자. 밝은 햇살이 속살까지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경영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매일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원

흔히 이 세상 부모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망정,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자식들에게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열왕기」하편에 보면, 그야말로 비참한 장면이 나온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판이 세겔이요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에는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자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나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와 자녀(5)-성경 속 부모와 자녀

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리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베를 입었더라."(왕하) 6장 24절~31절)

이 대목은 배가 고과 죽어가는 절제 절명의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말썽한 자식을 잡아 신에게 바치는 못된 버릇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방민족 암몬 사람들은 몰래(「너희 왕」 곧 '우상'을 가리킴)을 민족 신으로 섬기던, 가증스런 우상 숭배의 제사 의식이

있었다. 이 몰래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에서 이미 섬겨지고 있었다(「신명기」12:31; 18:9). 이 우상은 인간의 몸을 근간으로 황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길 때, 암몬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아 불태우는 인신(人身) 제사를 드렸다.("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역대하」제 28장 3절)

이 혐오스럽고 부패한 제사 의식(렘 32:35)은 솔로몬 때에 결혼 동맹으로 인해 들어온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흘러들어와 나라를 오염시켰고, 예루살렘 근처 '힌놈의 골짜기'에 그 제단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 '힌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일종의 쓰레기 소각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도벳 산당에서는 바알과 몰렉 등에게 인신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바 항시 쓰레기를 태우거나 인신 제사를 위한 제단에서 불이 솟구치는 장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신약에서 '지옥'은 '평생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어떻게 이 같은 범죄(사람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는 결국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누어져 결국 차례로 멸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율법에는 이런 가증스런 우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규정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처형하되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

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

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음력 8월 1일)

48년생 신장소인 부분 말꿈치 사리다. 60년생 여가 지역할 재축 걸음 걸어보자. 72년생 인심하리 대담 평화가 다시 온다. 84년생 말라하는 부락 모양만 빠져간다. 96년생 한문했다.는 보람 자랑도 늘어난다.	49년생 크고 작은 요정 불행 없이 받아주자. 61년생 분위기 수성해도 할 말은 해야 한다. 73년생 꾸미지 않은 소박함을 지켜보자. 85년생 강한 자 신강 불가능에 도전하자. 97년생 뛰어난 학습능력 열심하리라 하자.	50년생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62년생 남비 없는 살림 아끼고 숨겨보자. 74년생 절대 겸손 하늘 높은 줄 알아보자. 86년생 세모와 네모 사이 중간을 지켜보자. 98년생 첫술에 배부르라. 의지만 보여보자.
51년생 안락한 삶으로 존재감을 뽐내보자. 63년생 싫다 하는 반대, 강하게 맞서보자. 75년생 강동의 순간들 기록으로 남겨보자. 87년생 경솔한 계산법 주고받아야 한다. 99년생 만들어지는 과정 각오를 다시 하자.	52년생 늦게 만난 인연 사람이 만들어진다. 64년생 가르친다. 혼수 본전도 못 건진다. 76년생 말썽 많은 자리 피하고 도망가자. 88년생 어떤 유혹에도 돌부처가 되어야 한다. 00년생 특별한 계획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53년생 귀한 음식 나오는 잔치가 벌어진다. 65년생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보자. 77년생 불신과 편견 높은 담을 허물어보자. 89년생 거칠게 지냈던 책임이 남겨진다. 01년생 발전하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진다.
54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호사를 누리보자. 66년생 커지는 축하 박수감 사히 받아보자. 78년생 오지 않는 소식 미련을 걸어내자. 90년생 겸손 겸손 예뻐하면 명을 쳐야 한다. 02년생 비뻥게 달려왔던 목표가 보여진다.	55년생 마냥 흥족한 표정 덕담이 오고간다. 67년생 조심스러운 현실고 민에 빠져보자. 79년생 나누는 인심 부자 소리 들어보자. 91년생 원하는 만큼의 욕심을 가져보자. 03년생 못오를 나무라도 포기는 금물이다.	56년생 주춧돌만 계획 속도가 붙어간다. 68년생 딸리고 흥분되는 계산을 알아보자. 80년생 반가움의 표시 지갑을 열어보자. 92년생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04년생 근사한 이름표 계급장이 달려진다.
57년생 최고라는 영예 무용담이 펼쳐진다. 69년생 위기에 기화로 반전에 성공한다. 81년생 새로운 시도 합격점을 받아본다. 93년생 남보다 배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05년생 착하게 하는 인사 점수로 매겨진다.	58년생 성실한 조건에도 거기에 응해보라. 70년생 흐려있던 기본 믿음으로 변해간다. 82년생 거침없는 질주 앞만 보고 달려가자. 94년생 선생님 말씀이 정답임을 알아보자. 06년생 어려움은 있지만 결과는 만족이다.	47년생 쉽다 하는 방식 낙제점을 받아낸다. 59년생 기운색 아름다운 나들이를 해보자. 71년생 급하면 순해 계몽을 피워보자. 83년생 근사한 발상을 실천해 옮겨가자. 95년생 영원한 비문에 경향까지 더해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